

# 자기부상열차 노선 어디로?

## 대구시, 총길이·이용수요등 고려...4개안 중 고심

건설교통부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유치전에 뛰어난 대구시가 노선 결정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건교부에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대구시가 이번 주 안으로 발표 될 시범노선 선정공고와 함께 곧바로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가 현재 검토 중인 노선은 모두 4가지. 대구엑스코에서 봉무산업단지~대구공항~동구청~동대구역~범어네거리~궁전맨션으로 연결되는 1안(12.7km)과 대구엑스코~검단네거리~북현오거리~파티마병원 삼거리~동대구역~범어네거리~궁전맨션로 이어지는 2

안(7.6km) 등이다.

또 2안에 두산오거리~범물동 용지마을을 추가한 3안(12.9km)과 대구엑스코~경북대 북문~신천동로~대구공고~파티마병원 삼거리~궁전맨션을 잇는 4안(14.9km)도 포함됐다.

시는 오는 5월말까지 4개 노선 가운데 최종 노선을 확정된 뒤 사업계획서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된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시범노선은 엑스코에서 출발해 대구공항과 동대구역을 거쳐 궁전맨션(범어동)까지 12.7km인 1안.

그러나 건교부의 선정평가 항목인 시범노선 이용수요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2안을 가장 유력한 노선으로 보고 있다.

교통수요가 가장 많고 건교부의 7km 이내 사업 원칙과도 제일 근접하다는 것. 시는 또 2안이 시범사업으로 결정되면 민자사업을 통해 3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궁전맨션에서 용지마을까지 구간은 지하철 3호선을 대신하게 돼 유치에 성공할 경우 3호선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안을 중심으로 가장 적합한 최종노선을 선정한 뒤 이달 중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의

유치타당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선정방안에 가장 적합하고 다른 후보 도시 보다 유리한 노선을 선정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동대구역세권 개발 활성화와 신개념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대구와 대전, 인천, 광주, 창원 등 으로부터 6월초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6월말 시범노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